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오로지 평화가 길’ 이다

11월 이 달의 책 후보 도서

《육조가 놓인 방》

이승우 지음 | 작가정신 | 121쪽 | 값 7,000원

《레닌의 노래》

김정환 지음 | 문학판 | 120쪽 | 값 6,000원

《리심》(상, 중, 하)

김탁환 지음 | 민음사 | 각권 350쪽 내외 | 각권 값 9,500원

《아우라지 가는 길》

김원일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95쪽 | 값 10,000원

《사람풍경》

김형경 지음 | 위즈덤하우스 | 376쪽 | 값 11,000원

《옛글에 빚대어 세상을 말하다》

강명관 지음 | 도서출판 길 | 300쪽 | 값 13,000원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전5권)

김명호, 김성연 등 지음 | 휴머니스트 | 각권 300쪽 내외 | 값 12,000원

《평화는 나의 여행》

임영신 지음 | 소나무 | 292쪽 | 값 10,000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김미경 지음 | 자우출판사 | 값 9,000원

《인간사색》

강준만 지음 | 개마고원 | 286쪽 | 값 10,000원

《영화로 읽는 중국》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 동녘 | 371쪽 | 값 15,000원

선정위원별 1 ~ 3위 추천도서

박상의 우석대 교수

1. 《평화는 나의 여행》
2. 《인간사색》
3. 《옛글에 빚대어 세상을 말하다》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

1. 《평화는 나의 여행》
2.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인간사색》

신종호 월간 <북새통> 편집장

1. 《평화는 나의 여행》
2. 《사람풍경》
3. 《육조가 놓인 방》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1. 《평화는 나의 여행》
2. 《옛글에 빚대어 세상을 말하다》
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사진을 찍던 기자들은 카메라로 젖은 눈을 가린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동정심과 인정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었으면 한다(이 책을 읽을 때는 꼭 손수건 한 장씩 지참하기를…).

2. 《인간사색》

‘2006 대한민국 상식백과사전’이라고 불려도 될만한 책이다. 사랑, 불륜, 질투, 순결, 키스, 욕망, 열정, 배신 등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20개 주제를 선정, ‘한국인론’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유형을 밀도 있게 구체화 했다. 그런데 이 책의 방점(傍點)은 아무래도 마지막의 ‘배신’에 찍혀 있는 듯하다. 저자는 민주당 분당이 라는 동전의 앞면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의 문제였지만, 뒷면은 ‘배신과 왕따’라는 내부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중은 정치의 앞면만 볼뿐 뒷면은 보지 않거나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성공했지만 민주당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약진에서 은근히 ‘배신자’의 암담한 미래를 기대하는 듯하다(256쪽). 그리고 이렇듯 명분보다 내부도덕에 더 비중을 두는 듯한 저자의 입장은, 결국 제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의리’의 비중을 간과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시비비를 확연하게 구분하던 이전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저자의 태도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2006년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리라.

3. 《옛글에 빚대어 세상을 말하다》

“최근 어느 학회에 논문을 썼더니 여러 이유를 들어 반려한다는 통보가 왔다. …… 반려의 이유가 우습다. 나의 논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 전문 학술지에는 맞지 않고,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저널에 맞는 것이다”(23쪽). 저자는 논문식 글쓰기를 강요하는 학계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솔직한 느낌이 들어간 대중적 글쓰기를 지향한다. 전작인 《조선 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가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종일관 도학자연(道學者然) 하는 교훈적 문체는 거슬린다. 전작에 비해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쉽다.

박상의 우석대교수

1. 《평화는 나의 여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대부분 CNN이 보여주는 이미 지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 구경하듯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포탄이 난무하는 현지의 아비규환은 그저 ‘강 건너 불’이다. 그들의 뉴스에는 ‘사람’은 없고 ‘전쟁’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이 의도하는 뉴스만을 보고 들을 뿐이다. 이라크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는 우리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고통 받는 이웃의 삶을 외면하는 몰인정하고 냉담한 인간이 되고 만다. 세 아이를 둔 엄마가, 지난 12년간 달마다 ‘해마다’가 아니다) 5천 명의 이라크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이 전쟁터를 찾았다. 엄마의 시선으로 전쟁터를 보려는 것이다. 그는 부상당한 한 어린이의 집을 방문한다. 무고한 어린이가 당한 처참한 부상에 통역을 하던 현지인이 울음을 터뜨린다. 울지 말라고 다그치던 사람도 울고,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1. 《평화는 나의 여행》

지구화되는 세계에서 전쟁의 존재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인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만큼 평화운동은 반체제운동의 중요한 거점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운동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친근한 어조로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실감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개개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인류의 참화 앞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작은 저항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만큼 의미 있고 아름답다.

2.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현대사회에서 교전읽기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고전 가운데 되살려야 할 것들을 골라내고 그 하나하나에 지금 이 시대의 의미를 복원해내는 집단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또 고전이라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줄일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정보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글쓰기라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3. 《인간사색》

사색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대개는 철학자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영역에 논쟁적인 언론학자로 널리 알려진 필자가 도전하였다. 필자가 갑자기 철학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 편만 읽어도 알 수 있을 법하다. 사색이라지만 그 사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언론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에 필자 특유의 열거와 정리의 수법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할 법한 사항들을 말하자면 '언론가적으로' 사색하였다. 이런 글이 원래 그렇듯이 이런저런 시비를 붙자면 한이 없겠지만, 이 전체가 한국인을 사유하는 데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신중호 편집장

1. 《평화는 나의 여행》

72%의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90%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전쟁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4%의 이라크 아이들이 자신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까 걱정을 한다는 통계적 사실만으로도 지구의 '평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의 협력간사, '아름다운재단'의 모금 팀장, '이라크평화팀' 일원으로 두 차례나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던 평화여행자 임영신 씨의 《평화는 나의 여행》은 관념이 아닌 경험과 실천에서 얻어진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4년간 20개국을 40여 차례 방문하면서 평화란 '관계 맺기'이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저자가 말하는 관계 맺기란 분쟁지역 아이들을 위한 '평화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처럼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지는 아름다운 실천들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본 분쟁 지역의 참상을 세세히 전하면서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전한다.

2. 《사람풍경》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정신분석을 받아야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정신의 병을 치료받는 일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고정관념이 발동을 한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부단히 균열시키며 가동되고 있다. 오감을 열어 세상을 받아들이고 소통시키는 마음의 길이 막힐 때 정신은 분열된다. 스트레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김경영의 《사람풍경》은 외면(세상)의 풍경과 내면(실존)의 풍경을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통합시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여행의 기록'이자 현대인들의 분열된 마음을 치료해주는 문학적인 정신분석서다. 무의식, 분노, 사랑, 우울, 불안, 공포, 질투, 시기심, 콤플렉스, 에로스, 자기 존중, 자기 실현 등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들의 의미와 가치를 외국여행의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작가의 내면 풍경을 통해 곡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욕조가 놓인 방》

현대인들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억압적 메커니즘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지 못하기에 방향하고 고민하며 산다. 그러한 삶은 '연기(演技)'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승우의 《욕조가 놓인 방》은 현대인의 모든 욕망은 연기의 표현이며 트릭이라는 냉정한 시선으로 사랑의 고통과 환상을 해부하고 있다. 자기검열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쾌락에 대한 욕망과 욕조가 놓인 방에서 죽음을 목망하는 한 여자의 소통 불가능한 사랑의 굴레가 마야문명의 유적이 있는 낯선 이국땅(신화적 공간)과 현실을 오가며 전개되는 이 소설의 매력은 '사랑의 불가해함'을 수수께끼처럼 제시하는 작가의 트릭이 작품 이면에 숨어있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연애소설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재봉 기자

1. 《평화는 나의 여행》

2003년 이라크 반전 평화팀으로 현지에서 활동한 임영신의 평화 여행기. 이라크와 레바논, 인도, 스리랑카, 에리트리아 등 가난한 분쟁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의 잘사는 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평화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 당장 눈앞의 이익과 필요에만 매달리기 십상인 세대에, 넓은 시야로 전 지구 차원의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역할 모델로서 젊은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

2. 《옛글에 빚대어 세상을 말하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의 지인이 강명관 교수가, 옛글을 매개 삼아 일상과 사회의 이모저모에 관한 통찰을 보여주는 잡문집. 비록 짧은 글들이고, 체계와 구성이 뚜렷한 기획물은 아니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인 고전을 바탕 삼아 삶과 세계에 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이 장점. 고전 하면 연상되는 고루하고 딱딱한 내용과 형식이 아니라, 유연하고 발랄한 관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젊은' 스타일의 글쓰기를 보여준다.

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영어학자가 쓴 한글 예찬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고도, 엘리트 문자인 한자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인쇄혁명의 선구자 몫을 구텐베르크에게 넘겨줘야 했던 쓰라린 과오, 한글이 얼마나 민주적이며, 과학적이며, 미적인 동시에 실용적인가를 역사적 실증적 근거를 들어가며 설득력 있게 주장. 특히 정보화시대 한글의 무한한 잠재력에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 '영어 공용어론'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영어 광풍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새겨 들을 만하다. **한글서체**